

전문성과 진정성이 녹아 있는 ‘Why?’로 학습자의 가치 창출

사람은 내면에서 생겨난 변화의 의지를 행동으로 옮기면 변화가 일어난다. 강사는 이러한 변화의 의지를 자극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강사라면 잊지 말아야 하는 키워드가 전문성과 진정성이다. 전문성이 없으면 학습자의 신뢰를 얻을 수 없고, 진정성이 없으면 학습자와 공감할 수 없기 때문이다. 강사에게 실력과 인격이 모두 요구되는 이유다.

백서연 Y cube 대표는 강의에 나서며 학습자의 변화과정을 목격하고, 그들에게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으면서 교감할 때 특별한 행복감을 느낀다. 무엇보다 백 대표는 ‘Why?’를 중심으로 ‘강의를 잘 할 수 있는지’, ‘강의를 잘하고 있는지’, ‘어떤 강의를 하고 싶은지’를 자문하며, 학습자들이 자신만의 가치를 찾아서 발전된 내일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지하고 있다.

백서연 Y cube 대표

경력 사항

현) Y cube 대표
한국코치협회 KAC 인증 코치

전) SK PSNM 경영지원실 전임 강사
SK 서비스에이스 교육사업본부 전임 강사
Focus China 중국지사 해외영업팀
인풍인터내셔널 해외영업팀

학력 사항

중앙대학교 글로벌인적자원개발대학원 인적자원개발학 석사
인하대학교 국제통상학/경영학 학사



미래를 예단하기 어려워지면서 기업의 구성원들은 경력개발에 대한 니즈가 강해졌다. 구성원들은 과거와 달리 기업에서 제공되는 교육을 넘어 스스로 학습하며,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역량을 높이고 있다. 이에 따라 강사들도 끊임 없는 학습으로 강의의 전문성을 높여야 하며, 진정성을 바탕으로 학습자들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 백서연 Y cube 대표는 이러한 흐름을 인지하며 전문성과 진정성을 인정받는 강의를 펼치고자 매진하고 있다.

“저는 ‘깊어지기 위해 넓어지는 중입니다’를 슬로건으로 삼고 강사로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특히 ‘활용(entice)’, ‘몰입(engage)’, ‘확대(extend)’로 구성된 ‘3e’ 모델을 기반으로 현업에 적용할 수 있고, 몰입이 가능하며, 사고를 확장할 수 있는 콘텐츠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어떤 콘텐츠건 골격이 확실해야 범용성과 전문성을 모두 녹여낼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3e’ 모델은 제 강의 분야인 리더십, 커뮤니케이션, 비즈니스 스킬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저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 ‘4c’로 불리며 미래인재가 갖춰야 할 핵심역량으로 언급되는 소통능력(communication), 협업능력(collaboration), 비판적 사고력(critical thinking), 창의력(creativity)을 높이려면 강사의 진정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강사와 학습자의 교감이 없으면 의사소통과 협업은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뿐 아니라 비판적 사고력이나 창의력도 교육에 몰입하지 않는다면 발현될 수 없습니다. 교감과 몰입은 학습자와 강사가 서로를 믿어야 발생하기 때문에 강사는 진심을 전달해서 학습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야 합니다.”

백서연 대표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강사의 본질인 전문성과 진정성을 강조한다. 우선, 백 대표는 전문성의 관점에서 애자일 조직이 이슈가 됨에 따라 조직의 모든 구성원은 리더십을 갖춰야 하며, 인간다운 삶에 대한 열망이 커졌기 때문에 조직은 커뮤니케이션에 주목해야 하고, 인공지능의 도입에 따라 인간만이 가능한 사고력에 각별히 집중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또한, 백 대표는 진정성의 차원에서 강사는 자부심과 투철한 사명감을 가져야 하는 동시에 무한한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직업이라고 말하며, 가치와 연결을 중심으로 강사라는 직업에 대한 자신의 철학을 구체적으로 공유한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만의 역량과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적절한 자극을 받으면 변화 의지가 생기고 행동을 하면서 역량과 가치가 개발됩니다. 그래서 학습자들을 자극할 수 있는 강사는 사명감을 가져야 합니다.



▲ 백서연 대표는 배움과 변화를 즐기는 자세를 견지하며 학습자에게 최고의 강의를 제공하고 자 노력하고 있다.

아울러 사람은 다른 사람과의 연결을 통해 행복감을 느낍니다. 예를 들어 점과 점이 만나면 선이 되고, 선은 다른 선과 만나 면을 이루며, 면은 다른 면을 만나 공간을 만듭니다. 이처럼 여러 사람이 모이면 네트워크가 형성되고, 이런 네트워크는 조직의 큰 경쟁력이 될 수 있습니다. 강사는 교육장에서 수많은 학습자와 소통합니다. 따라서 강사가 어떤 강의를 어떻게 제공하느냐에 따라 학습자들은 그동안 몰랐던 다른 학습자와 교류하고 새로운 인적 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저는 학습자들이 서로 친분을 쌓고 다양한 얘기를 나누는 모습을 보며 행복감을 느낍니다. 타인의 삶에 긍정적인 연결고리를 만들어줬기 때문이죠.”

강사라는 직업에 자부심을 느끼며 살아가는 백서연 대표. 언제나 오늘보다 내일 더 뛰어난 강사로 성장하기 위해 백 대표는 ‘Why?’를 중심으로 항상 자신에게 다양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 실제로 ‘Why?’라는 물음은 ‘강의를 잘 할 수 있는지’, ‘강의를 잘하고 있는지’, ‘어떤 강의를 하고 싶은지’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며, 강사로서의 삶을 이끌어 준 이정표였다.

이렇듯 백서연 대표는 다각도로 역량을 개발하는 데 매진하고 있다. 백 대표가 인정받는 강사로 성장할 수 있었던 비결도 멈추지 않는 노력에서 비롯됐다고 확신한다. 앞으로도 백 대표를 통해 많은 사람이 변화 의지를 느끼고 행동하며, 가치 있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길 응원한다.HRD